

예향 40주년 남도 투어-다도의 멋 찾아 茶 여행

# 진하게 우려낸 '자연' 茶향따라 남도 유람

해남 대흥사·강진 백련사·보성 다원 등 '차의 성지'  
찾잎 수확부터 튀어내기·건조 등 각기 전통방식 따라

푸르른 자연 속 템플 스테이·찾잎 따기 체험 등 다채  
차 끓는 소리·향기·빛깔·맛·온도 등 오감 느끼며 힐링



해남 대흥사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인 '스님과 함께 제다체험'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들.



산비탈을 초록빛깔로 물들인 보성 북재대원의 풍경.

우리나라 수 있다. 이후 식혀주고 건조시킨다. 살정, 유념, 건조까지의 과정을 아홉 번 반복해야 대흥사 녹차가 비로소 완성된다.

초의 스님이 알려준 이 과정을 충실히 잘 이행했을 때 차의 특성이 사라지고 맛과 향, 녹차의 좋은 성분이 유지될 수 있다.

대흥사에서는 절을 찾는 이들에게 차를 만들고 마시는 법을 알려준다. 지난 4-5월에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흥사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인 '스님과 함께 제다체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템플스테이를 통해서도 체험이 가능하다.

초의선사의 사상을 잇고 불교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대흥사 차문화 체험관도 최근 완공돼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제다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해장스님과 다산의 차 맛 잇는 강진 백련사= 강진의 차 역사도 초의선사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인연으로 이어진다. 다산은 초의보다 앞서 백련사 주지로 있었던 해장스님과 차를 즐기며 우정을 쌓았다. 만덕산 백련사는 고려시대 때부터 자생해온 야생차밭이 있는 곳이다. 만덕산은 야생차 나무가 많아 다산(茶山)이라고도 불렸다. 백련사 인근 다산초당에서 오랜 세월 보내며 실학을 집대성했던 정약용도 이곳의 이름을 따 자신의 아호로 삼았다.

해장스님은 백련사 부근 짙은 초원으로 차를 만들어 다산에게 보내기도 했으며, 다산은 해장에게 차를 보내 달라는 시 '결명소'를 지어 보내기도 했다. 초의선사를 다산에게 소개시켜준 이도 해장스님이었다.

해장 스님이 머물렀던 백련사와 다산이 머물렀던 다산초당을 오고가던 오솔길은 동백숲과 야생차가 아름다운 곳으로 한국의 차를 부흥시켰다고 해서 '찾길'로도 불린다.

백련사에서는 오늘날까지 해장스님과 다산이 마셨던 차 맛을 이어가고 있다. 어린잎을 따 튀고 말리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쳐 녹차와 발효차를 만들고 해장 스님이 다산에게 만들어 보냈다는 떡차를 만들기도 한다. 떡차는 찻잎을 저서 찜는 다음 떡처럼 빻은 덩어리차다.

다산이 해장스님과 함께 마셨던 차 맛을 느끼고 싶다면 백련사 템플스테이를 이용하면 된다. 당일 체험형 템플스테이로 '다산의 차맛은 어떨까?' 다도(茶道)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귀로는 찻물 끓이는 소리를, 코로는 차의 향기를, 눈으로는 차의 빛깔을, 입으로는 차의 맛을, 손으로는 차의 따뜻한 감촉을 느끼는 오감(五感)의 차 문화를 배울 수 있다. 강진에는 만덕산 외에도 보은산, 월출

산, 득천, 금곡사, 수인산, 다산초당 주변 등에서 야생녹차를 재배하고 있으며, 야생수제차의 진미를 경험할 수 있는 '야생수제차 품평대회'도 매년 열리고 있다. 푸르른 녹차밭을 걸으며 차의 향기를 느끼고 싶다면 백련사 차밭과 성전면 강진대원, 이한영차문화원 등을 거니는 것을 추천한다.

◇'녹차수도' 보성의 다원들= 다원이 많은 보성은 '차의 고장'으로도 불린다. 예로부터 한국차의 명산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 지리적으로 한반도 끝자락에 위치하는데 바다와 가깝고 기온이 온화해 차 재배에 적합한 습도와 온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녹차수도 보성'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보성읍에서 회천면에 걸쳐 곳곳에 다원이 들어서 있다. 이 가운데 대한다원보성농원(대한다원)은 국내 유일의 차 관광농원으로 꼽힌다. 1957년부터 차 재배를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큰 규모를 자랑한다. 푸른 녹색의 카펫을 깔아놓은 듯한 장관을 이뤄 사계절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드라마나 영화, CF 등의 단골 촬영장소이기도 하다.

회천면의 백록다원은 유기농 녹차를 재배하는 다원이다. 14만 평에 달하는 차밭이 평지와 산지에 넓게 펼쳐져 있으며 차밭 뒤로 펼쳐지는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다. 백록다원에서는 우전차와 발효차, 세자, 녹차발효차세트, 녹차티백, 가루녹차, 티퍼레이드 등을 만들어 판매한다. 5월 중순 이후 5개월간 찻잎따기와 수제차 만들기, 천연 녹차 차약과 방향제 만들기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다. 회천면 영천다원도 빼놓을 수 없다. 영천저수지에서 올라오는 습기로 만들어진 안개와 청정 특유의 미네랄이 풍부한 해풍이 만나는 차밭은 좋은 차를 만드는 최적의 환경이다. 이곳에서 생산한 녹차와 홍차, 황차 등은 국제 차 박람회, 엑스포 등에 참가해 다양한 부문에서 수상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녹차밭의 시원한 풍경을 바라보고 싶다면 북재대원과 명랑다원을 추천한다. 보성에서 읍포로 가는 18번 국도의 언덕길 정상에 자리한 북재대원은 보성의 다원 중에서도 손꼽히는 풍경을 자랑한다.

차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차박물관도 들어서 있다. 차 문화관, 차 역사관, 차 생활관을 테마로 보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보람 기자 boram@·사진=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곡우에 맞춰 수확한 보성 백록다원 찻잎.

